

Next Generation Network Global Standards Initiative(NGN-GSI)

김 선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팀장
김 영 재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선임연구원

지난 7월 SG13I 회의에서 그동안 승인을 미루어왔던 NGN Release 1 출시를 하였다. 이때 출시된 NGN Release1 권고안 Supplement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권고안이 SG13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금번 10월 NGN-GSI 회의에서는 지난 SG13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SG13 및 SG11의 WP 레벨에서 권고안 승인이 있었다. SG13에서는 7건의 권고안을 승인하였고, SG11에서는 3건의 권고안이 승인되어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본 원고는 이번 NGN-GSI의 주요 회의결과를 국내 대표단 활동 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 국가기고서: 36건,
한국 섹터기고서: 60건

○ 주요 결정사항 및 결과

- 한국주도로 작업한 2건의 표준(안)을 포함한 10건(SG13 7건, SG11 3건)이 WP(Working Party)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의견수렴(AAP) 과정을 거치고 있음.
 - SG13: 7건(Y.2262, Y.2013, Y.2611, Y.2201, Y.1454, Y.2901, Y.2902)
 - SG11: 3건(Y.3401, Q.3301.1, Q.3302.1)
- 한국에서 제안한 4건의 표준(안)을 ITU-T SG13에서 신규 권고(안) 작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7명의 한국인 에디터가 추가로 선임됨.

I. 회의 개요

- 회의명 : ITU-T NGN GSI 회의
- 회의 기간 : 2006. 10. 30 ~ 2006. 11. 03
- 회의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참가자 : 총 200여 명
한국 국가대표단: 총 35명
- 제출 기고서 : 총 256건

II. 주요 회의 결과

1. 국내 주요 성과

가. 권고안 승인

SG13 WP에서 한국주도의 권고안 2건을 포함하여 10

건(SG13 7건, SG11 3건)이 승인되었으며, AAP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로써 ITU-T SG13에서 최초로 한국주도로 NGN 표준화 활동을 통해 권고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Y.2262(Y.emsim, NGN으로의 PSTN/ISDN 서비스 진화, 에디터 TTA 김영재 박사)
- Y.2013(Y.CSF, NGN에서의 융합서비스 프레임워크, 에디터 KT 황진경 박사)

SG13 WP에서 한국주도의 권고안 2건을 포함하여 권고안 7건을 승인하였다.

- Y.2262(Y.emsim, PSTN/ISDN emulation and simulation)
- Y.2013(Y.CSF, Converged Service Framework)
- Y.2611(High level architecture of future packet based networks)
- Y.2201(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future packet based networks)
- Y.1454(Y.tfo-ip, Tandem Free Operation - IP)
- Y.2901(Y.cgoe, The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 reference model)
- Y.2902(Y.cgoe-cmpts,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 components)

SG11 WP에서 아래의 권고안 3건을 승인하였다.

- Y.3401(Q.NNI_profile - NGN NNI signalling profile)
- Q.3301.1(Q.rcp1 - Resource control protocol - Protocol at the Rs interface)
- Q.3302.1(Q.rcp2 - Resource control protocol - Protocol at the Rp interface)

나. 신규 권고안 제안·채택 및 신규 에디터 선임

한국에서 제안한 총 4건의 표준(안)을 ITU-T SG13에서 신규 권고(안) 작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7명의 한국인 에디터가 추가로 선임되었다.

- IP망의 NGN망으로의 진화(Best effort IP network evolution to NGN, 에디터 : 김영재/TTA)
- 관리형 전송서비스 표준(Managed Delivery Service, 에디터 : 최영숙/KT)
- 망접속 제어 표준(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 에디터 : 양성보/ICU, 김정운/ETRI)
- ID와 Locator 분리 표준(Separation of ID and Locator, 에디터 : 인민교/ETRI, 유태완/ETRI, 이승운/ETRI)

2. 기타 주요 사항

가. 중국의 표준화

지난 7월 SG13 회의에서 시리아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중국주도의 권고안 Y.2201(Future Packet Based Network)이 금번회의에서 권고로 승인되었다.

나. SG13 의장단 교체

SG13의 Q1 라포처인 흥경협(Cisco)과 부 라포처인 M. Ling Lee(중국)가 의장직을 그만두고 임시로, 라포처로는 Mr. Imanaka(NTT)가, 부라포처로는 Mr. Chang(Huwei)가 맡기로 했다.

3. 차기 회의 일정

가. NGN-GSI interim 회의(2007년 1월 8일 ~ 12일, 중국 베이징)

나. 8차 CJK NGN WG 회의(2007년 2월 5일 ~ 6일, 한국 제주도(예정))

다. SG13 회의(2007년 4월 16일 ~ 27일, 제네바)

III. 맺음말

이번 회의는 위에서 정리한 회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대표단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으며, 2건의 권고안 채택 및 4건 신규권고안에 대한 작업이 한국주도로 진행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한 매우 뜻 깊은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KT의 황진경 박사와 TTA 김영재 박사가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한국주도로 SG13분야에 표준화를 추진하여 채택되는 최초의 권고이며 그 의미가 더한다.

현재도 NGN 표준화의 주요 분야인 기존 망 진화, 서비스 진화, QoS, IPv6와 같은 분야에서 국내 에디터 및 라포치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IP망의 진화, 관리형 전송서비스, 망접속 제어, IP 주소의 ID와 Locator 분리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가시화 됨에 따라, ITU 표준화에 더 많은 국가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NGN-GSI 회의에서 논의된 표준화 이슈들은 TTA의 NGN PG(PG204, 의장 함진호)를 중심으로 국내의 요구사항들을 논의하여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결과를 신속히 국내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TTA**